

SUNBO FAMILY vol.58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2008.11.15

since 1986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5S 전진족구대회

서로를 알아갔던, 가을날의 족구경기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본사 2공장 식구들이 경기장에 뿔뚱 났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주했던 일터는 잠시 미뤄두고, 하늘이 유난히 높던 가을날, 대망의 족구 준결승,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서다.

이 날의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2공장 직원, 아니 선수들은 점심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 해 예선전을 치렀다. 5인으로 구성된 총 6개의 팀이 치열한 경쟁 거치고 준결승, 결승전에 진출한 터라 그 열기는 그 어느 경기보다 뜨거웠다. 한 치도 망보할 수 없는 숨 막히는 경기의 최종우승자는 신덕 ENG. 그러나 우승자를 떠나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빛을 발한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20만원, 아쉬운 준 우승팀에게는 상금 1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이번 경기의 상금은 각 팀의 소장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찬조했다.

이 경기는 지켜본 한 직원은 "신설되어 서로가 서먹했던 분위기가 이날의 경기를 통해 많이 풀어진 것 같다. 함께 호흡하며, 땀 흘리며 운동한 보람이 있다. 이번 족구경기로 인해 소속팀간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다른 팀과의 유대감이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날은 번외 경기도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한편 이러한 행사는 다른 공장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주) 강화구상무, 한영석상무 본사 방문



현대중공업(주) 강화구 상무 및 한영석 상무 일행은 HHI 실사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우리회사를 방문 하였다. 이날 방문은 다대 선보공업 외 구평 및 영도공장을 아우르는 실사로 진행되었으며, 공장 견학 및 UNIT 팀방을 병행 하였다. 실사단 일행은 특히 BLOCK UNIT에 중점적으로 실사를 하였으며 실사 후 상태를 평가해 야드(현대중공업)로 송부할 예정이다.

우리회사는 철저한 준비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히로시마 공고 우리회사 견학



부산 기계공고 산학협동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부산 기계공고의 자매 학교인 히로시마 공고의 한국 방문으로 견학할 공장이 우리 회사로 지정됨에 따라 본사 견학을 실시했다. 방문단은 본사 및 유니텍 공장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특히 유니텍 공장의 안벽에 감탄 금치 못했고, 다양한 부분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하구 관내 무료급식 지원

우리 회사는 사하구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주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특별히 직원들이 무료급식에 참여한 후원행사를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 대상 급식소는 불교 재단(괴정1동), 몰운대 복지관(다대동), 사하 복지관(감천동) 3곳이며 성금 전달과 함께 직원 6명이 급식을 도왔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이웃과 함께 하는 정신을 잊지 않고 무료급식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영혁신

현장혁신

작업 속의 작은 아이디어로 제품 보호를... “지그”

우리 회사는 철 의장 및 구조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구조물들을 다루는 도구를 또한 철이라 철과 철이 만나서 발생하는 각종 제품에 대한 데미지로 인하여 제품 파손 및 도장 벗겨짐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다대 1공장 공

장장인 임영삼 부장은 고민 끝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어 이러한 파손과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종 지그를 만들어 현장에 활용하고 있어 지면을 통해 이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자 한다.

V/V핸들 분리용 지그

VALVE EXTENSION 설치를 위하여 핸들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지그로 핸들 파손 방지와 제품보호 그리고 운반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작업
- ▶ 핸들 파손 위험 상존
- ▶ 속 휘어짐 발생
- ▶ 시간 과다 소요
- ▶ 지그 사용
- ▶ 핸들 파손 방지
- ▶ 제품 보호
- ▶ 운반 시 안정성 확보

FLANGE용 지그

후렌지의 언라인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지그로 안전사고 위험 감소 및 정밀 작업이 가능 하도록 한다.



- ▶ 시노 사용 작업
- ▶ 시노가 탈락하면서 신체에 충격을 가하는 안전사고 빈번
- ▶ 과다 인력 투입
- ▶ 반드시 2인 작업 필요
- ▶ 후렌지 시노 사용모습
- ▶ 안전사고 위험 감소
- ▶ 1인 작업 가능
- ▶ 정밀 조정 가능으로 인한 품질 향상

용접 케이블 걸이대

용접기 케이블을 안전 통로 위로 지나가게 함으로서 안전통로 확보와 청결 작업장을 유지할 수 있다.



- ▶ 바닥 및 안전 통로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용접 케이블로 인하여
- ▶ 안전통로 보행 시 안전사고 위험
- ▶ 물건 이동시 파손 위험 상존
- ▶ 안전통로 상부로 케이블 걸이대 설치
- ▶ 안전 통로 안전성 확보
- ▶ 파손위험 감소

PUMP 운송용 지그

펌프 및 각종 장비 운송시 사용하는 지그로 크레인 와이어가 제품에 닿아 발생 하는 데미지를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



- ▶ P/P 운송시 와이어가 데미지를 발생시킴
- ▶ 카바 찌그러짐 발생
- ▶ 각종 약세사리류 파손
- ▶ P/P운송용 지그 사용
- ▶ P/P와 터치되는 부위가 없음으로 파손 위험 없음

회사 소식

진단평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인적자원 개발체제 진단평가 실시



진단평가팀에서 CEO리더십, 인적 자원기획, 교육훈련개발, 학습자원 지원 분위기, 성

우리회사는 노동부와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08년도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진단평가 사업을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들 간 실시하였다.

금번 진단평가에는 엄만성 박사 등 2명의 HRD 전문가로 구성된

과관리 등 총 6개의 범주로 75개 문항에 관하여 우리 회사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200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중장기 목표인 SB 2012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회사의 인적자원 관리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미래 인적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고 강평하였다.

최홍렬 상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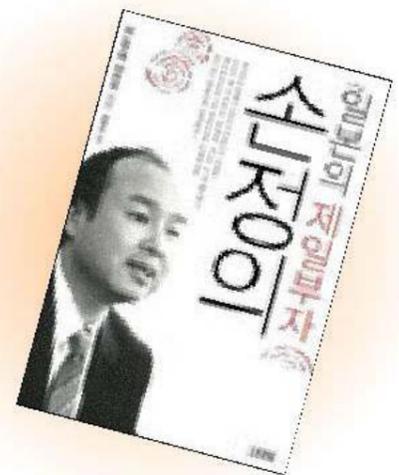
이 한권의 책

일본의 제일 부자 ‘손정의’

고개 숙인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하여

구조적인 불황과 심각한 실업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대학은 취업입시 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청년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꿈은 생각지도 못하고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실현은 포기한 채 다만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근근이 삶을 이어갈 뿐이다. 자신이 처한 열악한 조건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꿈꾸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한 남자가 있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난 조센진 아이. 일본 아이들이 이유 없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린 소년.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태생의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해 울분을 삼켜야 했던 청년. 그러나 그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꿈꿨으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몸을 던졌다. 그리고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이 책에 담긴 그의 파란만장을 인생을 읽다보면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청년은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고, 손정의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꿈은 꾸는 청년들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 저널리스트가 21세기의 새로운 삶과 도전을 꿈꾸는 청년에게 보내는 ‘희망’의 연애편지다.



글 마당

구매부 이수원 어느 봄날...

약장수는 약을 팔고, 사기꾼은 양심을 팔고, 글쟁이는 글을 판다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파는 것일까? 나쁜 날 일요일 오후 방 한 구석에 엎드리어 몸에 꼭 맞는 베게 하나를 가슴에 받치고 펜을 들어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 만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기대감 보다는 망설임이 많이 앞서는 일이었다.

"대성이 방위성금 가져왔나?" "안가고 왔다" "집에 돈 없다"
"니 그럼 어쩔라고 하노?"

방위성금 30원이 없어 부끄럽다며 매일 아침 울며 학교에 가던 대성이, 엄마가 입던 몸배를 줄여 입고 다니던 중준이,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핀을 꼽던 경희, 이 모든 것들이 20년 전 6년 동안의 모습인데... 동창회를 한다니... 키가 컸던 미주는 국민학교시절 그 키 그대로였으며, 그림을 잘 그리던 여필이는 엔지니어로, 말 없던 석문이는 주방장으로, 부지런하던 종열이는 농부로, 덩치가 있던 재수는 신용회사 채무담당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여타 시골 국민학교가 그랬듯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뿐인 탓이라 우리는 6년 동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였으며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지낸 처지였다.

그러나 20년이란 시간은 무시하지 못할 세월이었던 것 같다. 가슴을 뒤덮고 있는 세상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었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 서먹서먹하던 분위기... 이윽고 한 명 두 명 옛 이야기를 하며 군데 군데 웅성거리더니 이내 킁킁대고 손뼉을 치고 악수를 하며 "내 누구다" "니 누구 아이가?" 하며 손을 잡는데 왜 그리 가슴이 뭉클하던지... 마치 군대 유격장에서 물에 젖은 지갑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던 느낌이었다. 얼마 후 선생님을 모시러 갔던 친구의 차가 도착하고 선생님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윽고 스승의 은혜를 불렀다. 모두들 가사를 몰라 그런 것이었

을까? 솔직히 나는 목이 메어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 변화지 않으신 선생님의 그 인자한 모습 감사할 뿐이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선생님을 위한 재롱잔치가 시작되었다. 남자를 여장하여 MISS 길곡초등학교를 뽑고, 선생님과 노래도 하고, 족구도 하고... 정말 따스한 봄날이 었다.

즐거울수록 시간은 빨리 가는 법, 짧은 하루는 벌써 저녁을 재촉하고 선생님의 기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들은 연신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였다. 여태 뵈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다음에 뵈기를 기대하며...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으며 인사를 하곤 헤어졌다.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 여운이 남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동창회사이트에 들어 갔다.

이심전심이었을까 나만이 그들이 그리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저녁 식사시간 친구의 얼굴만 보느라 저녁을 못 먹어 다시 저녁을 먹는다는 친구, 기분이 꿀꿀하다는 친구, 벌써 보고 싶다는 친구 등등... 벌써 가을이다! "낙엽을 태우면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는 이효석의 수필이 생각난다. 옛날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문구가 요즘은 왜 이리 가슴에 와 닿는지... 오는 일요일엔 근교 시외로 가보아야겠다. 수북이 쌓인 낙엽 밟는 소리를 우리 아이에게 들려주어야겠다. 내가 봄날을 기억하듯 언젠가 우리 아이도 가을날 낙엽 밟는 소리를 기억하겠지... 어느 가을 따스한 봄날의 기억에 미소 잃은 미소를 흘려본다.



여행지

진영 단감밭

단감 체험으로 가을의 결실을 느껴보아요!!



우리 회사는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8일 진영 단감밭에서 단감따기 체험을 했다. 최상식 부사장님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족 단위의 참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호기심 어린 자녀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과 가족이 함께 단감을 따는 체험을 통해 가족애가 영글은 단감처럼 무르익었다.



참여 행사

부산국제 마라톤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달려요-부산국제 마라톤 참가



우리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해마다 연 2회씩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을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1월 9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평소 소홀하기 쉬운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대회를 통한 단합심 과 애사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이번 행사는 총 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졌습니다.

특히 2공장 정호경 상무님은 10km 경기에서 50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공식 3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부 최순찬 과장은 국제신문에 크게 기사가 소개되는 등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 보다 규모나 결실 면에서 좋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대회에 더욱 좋은 성적을 위해 다함께 노력 합시다.

생생현장의 소리

자재부 | 전철민 팀장



시야를 넓히면 흐름이 보인다!!

“일을 하면서 어떤 때 제일 힘든가요?” 인터뷰를 할 때면 꼭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이 질문에 반 이상의 사람들은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때가 조금 힘들어요.”라고 말한다. 그런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늘 궁금했다.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머릿속에 가시지

않을 때쯤 자재부를 인터뷰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2공장 자재부의 전철민 팀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재부도 자재부 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 때 물건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자재부는 독립적인 팀이 아니라 설계, 구매부와 한 팀이다. 서로의 과정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 자재부는 인원 부족의 고충 또한 안고 있다. 전철민 팀장은 “본사에

서 일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수월했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공장에서는 본사에서 보다 몇 배의 일을 한다. 일의 양은 늘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2공장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2인 1조로 흩어져 나름대로의 분업을 해도 힘든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재부는 현장혁신에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게차 보호 커버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현장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철민 팀장은 “상무님이 도장부에서 손해가 크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지게차로 도장한 제품을 운반할 때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게 되었다. 고가의 커버도 있긴 하지만 저렴하고 알뜰하게 커버를 만들고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회사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현장혁신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전철민 팀장은 “현장혁신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실천과 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습관에 되는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많은 이들이 있는 곳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느 팀 할 것 없이 자신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보충된다면 더 좋은 근무 환경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2호 주인공 | 조장 방종만 반장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그의 경험이 빛난다

Q 칭찬 릴레이 32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사실 주변의 반응을 떠나서 제가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조차 금시초문이에요. 다들 각자의 업무에 열중하느라 바쁘다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주변 분들보다 뛰어난 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17년 동안 배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배를 만드는 다른 직원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는 5년 밖에 안됐지만 배에서 생활했던 그 때의 경험이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배를 타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특별한 것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일하려고 했을 뿐인데 감사한 일이지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앞에서 말했지만 타본 사람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는 미세한 부분이라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 시절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배를 만드는 데 응용하고 활용하려 하는 편이에요.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아는 동료들과 어우러져서 최상의 조합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해요.

자재조달 부분에서 힘든 점이 가끔 있긴 하지만 모두들 잘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비록 납기일이 촉박할 때는 고생할 때도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도와가면서 일하는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지요.



축하합니다!

본사생일

- 설계 장철호(11/11)
- 박황수(11/17)
- 신유철(11/18)
- 장성훈(11/30)
- 문종현(11/20)
- 장호길(11/15)

본사 입사기념일

- 설계 장성훈(11/21)
- 신유철(11/1)

1공장

- 안병선(11/10)

고객지원

- 정재현(11/25)
- 강지은(11/25)
- 김현수(11/13)

3공장

- 윤강현(11/1)
- 최병화(11/15)

1공장

- 정창섭(11/7)
- 노승태(11/28)
- 최철(11/6)
- 김수현(11/28)
- 백선우(11/2)
- 현광진(11/5)

고객지원

- 강지은(11/4)
- 김이핀(11/4)

사업기획

- 공진일(11/1)

3공장

- 박재용(11/29)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그림찾기

5개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덱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